

### 3

## 조선소 지게차 운전자에게서 발생한 폐암

성별	남	나이	52세	직종	지게차, 트럭 운전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----	-------	----

### 1 개요

김○○은 1982.4.부터 선박건조업체인 D사 중기공무운영팀에서 지게차 및 화물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, 2001.4. 우측 경부 종괴가 발생하여 원발 병소를 찾기 위한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폐암 또는 간암의 전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받았다.

### 2 작업환경

1982.4.~1990.3.까지 지게차를 운전하여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재와 각종 물품의 운반작업을 하였으며, 1990.4.~1995.5.까지는 Rotating 지게차로 회사 내 폐기물을 트럭에 옮겨 실었는데, 취급하는 폐기물 중 가연성은 주로 일반쓰레기 종류, 불연성은 고철, 분진, 전선, 페인트 등이다. 샌딩작업에서 발생한 분진가루 등은 요청이 있을 때 별도의 지정차 1대가 수거작업을 하였다. 하루 수거량은 수거통으로 70~80개 정도이었으며, 2개 조가 이를 간격으로 수거하였다. 1996.1.~2000.9.까지는 회사 내에서 각종 자재를 수송하는 트럭을 운전하였는데, 작업시 분진 비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Rotating 지게차 운전작업시 분진노출 가능성이 있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, 실작업시간 동안 측정한 작업자의 총 분진 농도는  $1\text{mg}/\text{m}^3$ 미만으로 나타났는데, 조사당일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지게차 문을 열고 작업하였다. 샌딩작업으로 발생한 분진가루의 운반작업에 대해서는 조사당일 작업이 없어 실

시하지 못했으나, 포대에 넣은 상태로 트럭에 싣기 때문에 분진 비산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도 매일 있지는 않았다.

### 3 의학적 소견

유족에 의하면 어머니가 뇌졸중에 이환 된 것 이외에는 가족력상 암 등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, 20세부터 사흘에 두 갑 정도 흡연하였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. 1994, 1995, 2000년 건강검진상 폐기종 의심, 1994년과 1999년에 실시한 종합검진시 복부 초음파에서 간혈관종 의심, 신낭종 소견이 있었다. 육군제대후 약 2년 간 택시운전, 3년 간 지게차 운전을 하였으며, 1982.4. D사에 입사하였다.

### 4 결 론

김○○의 폐암은

- ① 원발부위가 간 또는 폐일 가능성이 있는 암이 폐, 간, 부신, 뇌에서 확인되었는데,
  - ② D사에서 약 5년 간 Rotating 지게차 운전작업 중 노출된 각종 분진은 대부분 일반 분진으로 그 노출수준도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며,
  - ③ 원발성 폐암이라 하더라도 하루 반갑 내지 한갑씩 30년 간의 흡연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,
-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.